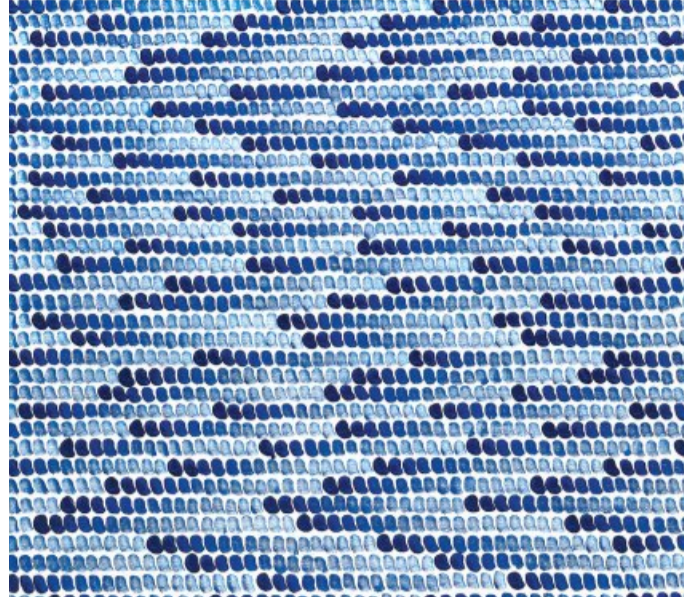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7월호



스탠리히트니 작 'Untitled' <<사>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 제공



이우환 작 'From Point' <<사>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 제공

2022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상반기 결산

# 낙찰액 200억...이우환 작가 3년 연속 1위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 10개 경매사 분석...총 거래액 1446억원

쿠사마 야요이·박서보 순...아야코 룩카쿠·김선우 등 젊은 작가 약진

올 상반기 경매에서 이우환 작가가 낙찰 총액 1위를 기록했다. 낙찰액은 총 200억원(낙찰률 75.5%)으로 3년 연속 1위다. 특히 올해 경매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로 떠오른 MZ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 작가 아야코 룩카쿠 등 40대 전후 젊은 작가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가 '2022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상반기 결산'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낙찰 총액 2위는 138억원(82.2%)을 기록한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가 차지했으며 3위와 4위는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상승한 박서보 작가(총액 85억 5000만원·86.7%)와 김환기 작가(49억 6000만원·58.5%)였다.

단연 눈에 띄는 건 40세 일본 여성 작가 아야코 룩카쿠의 상승이다. 약동같은 여자 아이가 등장하는 그의 작품은 화려한 원색과 어린애가 그린 듯한 자유분방함이 특징이다. 2020년 결산에서 30위권 밖에 있었던 그의 올 상반기 낙찰 총액은 46억 4000만원(65%)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어 10위 안에는 이매, 김창열, 윤형근, 이건용, 스

탠리히트니가 이름을 올렸으며 요시모토 나라를 비롯해 이강소·정상화·김종화·하종현 등 국내 원로 작가들이 20위안에 포진했다.

젊은 작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40대 초반의 미국 작가 사라 휴즈는 18위를 기록했다. 국내 젊은 작가로는 '도도세 작가'로 유명한 김선우가 11억 3000만원을 낙찰받아 20위에 포진했다. 특히 그는 63점의 작품 중 61점이 주인을 찾아가는 등 낙찰률 97%를 기록, 낙찰 총액 20위 순위 작가 중 최고 낙찰률을 기록했다.

최고 낙찰가 1위 작품은 44억원을 기록한 쿠사마 야요이의 'Statue of Venus Obliterated by Infinity Nets'였으며 2위는 스탠리히트니의 'Untitled'가 18억원에 낙찰됐다. 3위는 쿠사마 야요이 'Summer-Stars (QPTW)'(18억 원)였으며 이우환 'From Point'(17억)와 김환기 '화실'(17억)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최고 낙찰 작가는 마르코 샤갈(42억원)이었으며 쿠사마 야요이(14억 5000만원), 르네 마그리트(72억 4000만원) 등이 매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한국역사상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김환기(85억 3000만원)의 작품이 차지했다.

한편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438억원)과 비슷한 약 1446억원을 기록, 국내 미술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찰률은 65.3%로 2021년 65.4%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총 출품작이 약 1000여점이 줄어든 1만 5766점, 낙찰작 역시 700여점이 줄어든 1만 296점(2021년 1만 999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세를 보여준다.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의 김영석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경매시장의 출품작과 낙찰작이 크게 줄었음에도 낙찰총액은 오히려 늘어나 작품별 평균 낙찰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그만큼 미술품에 대한 투자심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서울옥션, K옥션 등 10개 회사 판매 실적을 토대로 했다. 경매회사 중에는 서울옥션이 약758억원·낙찰률 76.6%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편 협회는 같은 작가라도 시장에서 선호하는 작품 주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적용해 세부 주제별 평균 호당가격을 산정한 'KYS미술품가격지수' 결과도 발표했다. 호당가격 1위는 김환기(지수 100)로 약4427만원이었으며 2위 이우환(54.7)이 약2422만원, 3위 박서보(25.5)가 약1128만원 등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연남



### 내 손으로 직접 '핸드메이드 전성시대' '남도 섬·미술관으로 여름휴가 떠나요'

손뜨개로 옷을 만들고 가족으로 가방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맥주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이들도 등장했다. 필요한 물건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Handmade·手製)' 열풍이 뜨겁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이 준비한 7월호 특집은 '핸드메이드 전성시대'다. 핸드메이드 최근 트렌드와 광주 봉선동 핸드메이드 거리의 공방들, 전국의 핸드메이드 축제와 소개하고 나만의 수제 맥주와 오디오 앰프를 만드는 이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여행 초대석에서는 단색화 열풍을 이끈 '한국 현대미술 거장' 박서보 화백을 만나고 왔다. 올해 91세인 박 화백은 살아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다. 그는 수행(修行) 하듯 무수한 선을 반복해 그려며 단색화 '묘법(描法·Ecriture)' 연작의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집념과 열정으로 한길을 걸은 단색화 거장의 화업(畫業) 72년 예술인생에 대해 들었다.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다. 여름 휴가를 앞당겨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 이번 호에 준비한 여름 기획은 '남도 섬·미술관으로 피서 떠나요'다. 1년에 한번 맞이하는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저마다 근사한 계획을 짜는마음이 바쁜 시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는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힐링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섬과 미술관의 기획전을 소개한다.

'노점 도시'가 아닌 '편(Fun)한 도시' 광주를 즐기는 '광주 한 바퀴'의 7월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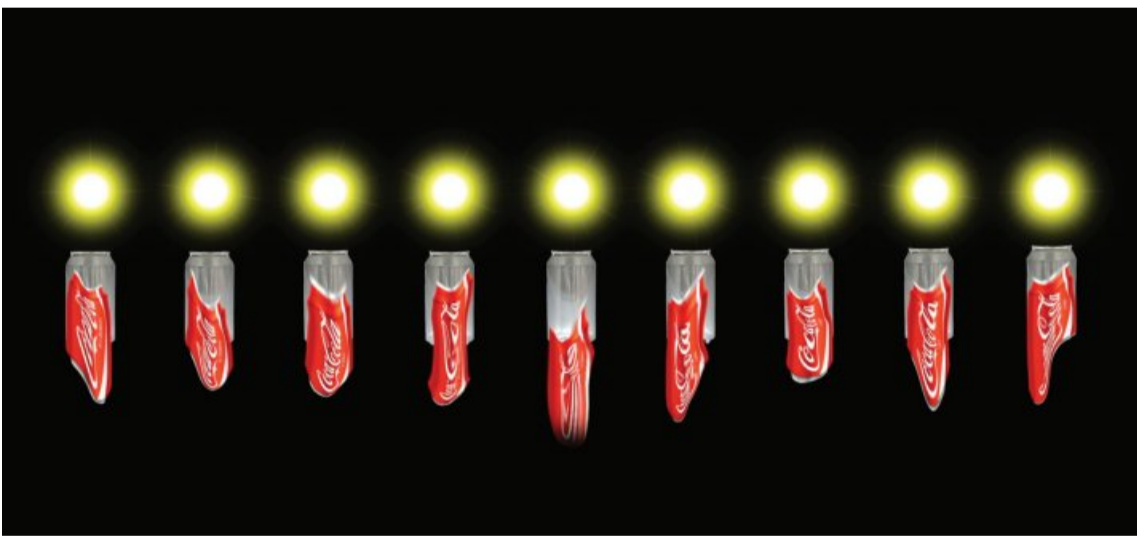
'Fun City(펀 시티)'다. 광주의 7월은 재미가 넘쳐난다. 3년 만에 광장으로 돌아온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마을을 찾아가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물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로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된 청춘발산마을에는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트피크닉'이 열리는 국립광주박물관, 신나는 여행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여름밤 미디어파사드를 감상할 수 있는 비엔날레전시관으로 떠나본다.

남도 오디오세가 찾아간 곳은 '감성여행 일번지' 강진이다. 다산 정약용 유배지, 전라병영성 등 문화유적이 가득한 강진은 최근 '한국의 나폴리' 마라항과 가우도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F-U-S-O' 체험도 인기가 높다. 아삭한 식감의 전라도 목은지와 전통장은 강진이 자랑하는 로컬 브랜드다. 한 여름, 강진으로 감성·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문화를 품은 건축물' 기행은 고도의 숨결을 담은 '건축의 향연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대공원으로 향한다. 황룡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설계한 경주타워, 대명원을 모티브로 한 돔 형태의 엑스포기념관, 자연과 예술이 하나되는 솔거미술관까지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전국의 건축학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의 서원' 이야기, 아품을 겪으면서 한층 성숙해진 광주 FC의 장신 공격수 허을 선수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Delight'

## 임용현 작가 '미디어의 양면성'

광주비엔날레 GB작가스튜디오탐방 유튜브 공개

올해 네 번째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임용현 작가를 만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작가 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서 27일 공개했다.

영상은 임 작가가 영화 연출과 방송국 PD생활을 뒤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프로젝트 맵핑, 인터랙티브 기법 소개, 미디어아트에 대한 생각, 대표 작품 소개로 구성된다.

임 작가는 '미디어의 양면성'에 대해 다뤘었다. 작가는 '달콤한 트루먼'(2021) 등의 작품을 통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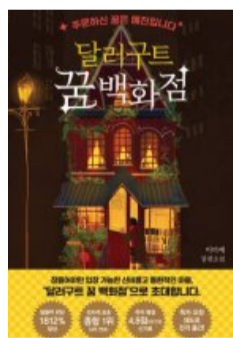
의 발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비평적으로 성찰하며, 기술이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경계한다.

영국에서 런던 예술대학교와 첼시 아트 앤 디자인 대학원을 졸업한 임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등에 참여했고 7회의 개인전과 서 '친애하는 빅브라더'(2021) 다수 기획전에 참여했다.

작가 연구에 대한 담론을 보다 확장시키기 양초롱 비평가가 탐구한 작가 연구 결과물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공공도서관 대어 1위 '달리구트 꿈 백화점 1'



지난 1~5월 전국 공공도서관 1330여 곳 이용자가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이미예가 쓴 '달리구트 꿈 백화점 1'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대출 데이터 등을 분석한 온라인 부정기 간행물 '도담: 도서관 빅데이터를 담다' 장간호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기 대출 도서 2위는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이 차지했다. 이어 '아몬드', '완전한 행복', '달리구트 꿈 백화점 2'가 3~5위에 올랐다.

월별 대출량 급상승 도서는 1월 '내 고향은 방울토마토 엄마', 2월 '거인의 포토폴리오', 3월 '센 강가의 이름 모를 여인', 4월 '백방', 5월 '살인자의 기억법'이었다. 이달의 키워드로는 1월 '한국사', 2월 '투자', 3월 '영어', 4월 '공부', 5월 '수학'이 꼽혔다. 또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 건수는 전년 동기과 비교해 4.81% 감소으며 남성보다 여성 대출량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책을 가장 많이 빌렸다.

/연합뉴스

## '위로와 회복' APS 나눔콘서트

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정현수·김상현 협연

'정직, 평등, 사랑'을 키워드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나눔의 연주단체 APS(Academy of Passion & Sharing·음악감독 진윤일)가 오는 5일 오후 7시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제5회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위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APS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광주에서 선보이는 무대다.

이번 공연은 정현수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의 '대금과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I'로 시작한다. 곡은 한국의 전통적인 랩소디 풍 리듬을 사용해 한국 전통의 정가창과 현악기 앙상블의 밀도 깊은 조화가 인상 깊은 곡으로 대금 연주자 김상연이 함께한다.

이어 독주와 합주부가 한국 고유의 리듬인 '자진모리'와 '굿거리'가 교차하며 마치 시를 낭독하는 듯한 장원대 예술대학 음악과 명예교수 김한기의 곡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고향의 봄' 연주를 들려준다.

세번째 곡은 사라사테의 '제고네르바이젠'을 연주하며 2017년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나경이 협연한다.

이어 쇼팽의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연주에는 라자르베르만 콩쿨



진윤일

정현수



강나경

황현정

입상자인 피아니스트 황현정이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바르톡의 '루마니아 춤곡'을 선보인다. 지휘에는 진윤일 음악감독이 함께한다.

전석 3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